

성탄주일
특별

「영생은 임마누엘」

<요한복음 17:3>

김 무 사 목사 (오사카니시나리교회)



전도서 3:11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적혀 있는 곳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캄캄한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을 때, 이 세계 그리고 우주는 영원히 계속되지만 자신은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라는 생각에 허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나 재미있는 이벤트가 끝난 뒤의 쓸쓸함이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수 없다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본질적인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소년이 琥珀(호박)이라는 비싼 돌은 소나무 송진이 수 만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는 동안 화석이 된 물건이라고 사람들에게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소나무 송진을 흙속에 묻었습니다. “그후 琥珀(호박)이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수 만년이나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릴 생각으로 평소대로 지내는데 불안해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묻은 다음날 저녁 묻은 구멍을 파내어 버렸습니다. 소년이 처음에는 수 만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물어 봤지만 단 하루만에 파내어 버렸습니다. (이 예화는 加藤常昭목사의 설교집 「마태복음2」참조)

이것은 인간 누구든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大阪城 천수각 앞 광장에 타임 캡슐이 묻혀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70년에 오사카에서 박람회가 열린 것을 기념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의 다양한 물건을 지하 15 미터에 아래와 위에 두 금속 캡슐에 넣어 5000 년 후인 6970년에 개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 세기 초에 위의 캡슐만 열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한번 개봉한 다음은 2100년에 개봉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좋은데 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 사는 것도 힘든데 영생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서기 2020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크리스마스 때를 기점으로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年号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요한복음 3:16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

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3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琥珀(호박)도 수 만년 지나면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더러운 소나무 송진의 덩어리를 보면서 자신은 이런 작은 덧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보석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 그 소년이 땅속에 묻은 소나무 송진이 수 만년의 시간을 한 순간에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을 보였다면 크게 기뻐하고 덩실거리면서 땅속에서 발굴하여 닦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통한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고후 4:7).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우리를 자신을 향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허무감과 외로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혀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임마누엘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고 신기하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되찾아 마음속 깊이 새로운 힘이 솟아 나게 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인 영원한 생명의 우물 앞에 섰던 날인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2천년 동안 참으로 다양한 크리스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최근 보기드문 쓸쓸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이런 공허함, 외로움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임마누엘의 축제인 것입니다!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많은 버팀목으로 계속할 수 있었던 교회학교 교사봉사

나고야교회 강 순 명 권사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는 저에게는 둘도 없는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동경했었던 저는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기쁨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히라노(平野)교회를 다녔던 저는 고등학생 때 정인수목사님의 권유로 교사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성가대나 청년회 활동도 하기 시작하였고 사회생활의 답답함을 벗어나 아주 알찬 믿음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생활의 큰 변화가 있어 모든 봉사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멀어졌습니다.

33살 때, 형제들이 있는 나고야(名古屋)로 옮겨 나고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광수장로님, 권인숙집사님 내외분의 아주 강한 권유와 격려로 36살 때부터 성가대, 37살 때부터는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를 하게 되어 나의 새로운 믿음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부를 오래 맡았지만 초등부, 중고등부도 각각 담당했고 사명감과 기쁨으로 늘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해서 커진 제자들로부터 “강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성경 말씀을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이 여호수아1장9절 말씀은 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열마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던 시절, 나고야교회는 중학생이 되면 어른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말씀이나 지식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 시절에 그들에게 맞는, 그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는 꼭 목사가 설교하실 것을 절실히 원했지만, 황의생목사님의 배려로 중고등부 예배가 1991년에 시작한 것은 정말로 감회가 깊은 일이었습니다.

67살 때까지 교사 봉사를 했고 그후는 두 세달에 한번 교회

학교 예배의 설교를 맡아왔지만 80세가 되는 올해, 모든 역할에서 물러났습니다. 청년 시절과 합치면 약 60년간 해온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의 인생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함성례집사) 덕분에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살던 오사카를 떠나 나를 위해 낯선 나고야에 같이 와 주신 어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 모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으로 교회로 갔었지만 사실 그것은 어머니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가 되어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44살에 재혼하고 32년간 함께 한 김광수장로님, 그리고 아들 가족, 사랑하는 가족의 큰 지원이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 도우미로

와타나베 사유리 목사

저는 2020년 4월부터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의 직원으로 비상으로 도우고 있는 渡邊さゆり(와타나베 사유리)입니다.

1월 말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에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평소보다도 차별적인 대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생활의 어려움과 인권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마다 일일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개별적인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거기에 무관심한 일본인들의 모습에 깊은 회개와 저항의 목소리를 들어 가고자 합니다.

나는 2020년도에 주로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의 화해와 평화의 영성 개발 부문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업무를 도우고 실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 들여 성의를 다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침례교연맹의 개 교회의 목사, 신학교의 교수, 그리고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인권에 관한 무거운 과제, 기독교회가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마이너리티 선교 센터의 사역을 통하여 더 배우면서 반차별의 관점에 서서 신앙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센터 개설로부터 4년째 활동 중, 금년도에는 성서 세미나를 시작하는 일, 마이너리티 인권 백서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임원회와 간담회 열어 12월 13일, 임시 Zoom 상임위원회 소집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 되면서 총회 임원회는 2021년 1월경에 개최되는 각 교회의 공동의회 및 각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최와 총회 상임위원회 개최에 대한 준비를 위해 지난 11월 22일~23일에 오사카교회에서 간담회,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임원회를 가졌다.

22일(주일) 저녁에는 오사카 인근의 중경 총회장(정연원목사, 김무사목사, 김중현목사)과 중경 부총회장(임영재장로, 윤성철장로) 몇 분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개교회 및 지방회, 총회가 격어야 할 과제를 나누었으며,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23일(월)에는 오사카북부교회에서 임원회를 열어 긴급한 사항들을 토의하였다.

2021년도 1월 경에 각 교회가 가지는 공동의회 개최에 대하여, 각 지방회 정기총회에 대하여, 4월에 가지게 되는 55-2회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오는 12월 13일(주일) 오후 5시에 긴급으로 임시 Zoom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어진 현안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실은 하기 기간에 사무실 업무를 휴무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 2021년 1월 5일》

안재홍장로·허근호장로 장립식을 거행

11월 29일(주일) 동경중앙교회에서는 안재홍, 허근호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장승권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관동지방회 부회장 이명충목사가 <장로의 자격> (딤후 3:1~7)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장로 장립식은 관동지방회장 김병철목사의 사식으로 소개와 서약, 안수기도 및 선포로 진행되었다.

금번에 장로 안수를 받은 안재홍장로는, 197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동경중앙교회에 출석하여 2002년부터 서리집사, 2010년부터 안수집사로 섬겨왔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가 있다.

허근호장로는 1965년에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에 입국하여 동경중앙교회에 출석하여 2003년부터 서리집사, 2010년부터 안수집사로 섬겨왔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 1녀가 있다.



안재홍 장로



허근호 장로



안재홍 장로 가족



허근호 장로 가족

「아버지 윤종은목사의 추억」 ~3주기를 맞이하며~

고베교회 윤성철 장로

아버지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부르신다” 고 하면 언제나 혼날 때였습니다. 목사님 덕의 자녀는 어디나 똑같겠지만 일요일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부모님이 오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보는 모두 혼자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없던 시절에 활자를 하나씩 편지로 주워 인쇄기에 집어넣고 만드셨습니다. 그 주보에는 반드시 일본어로 설교요약이 있었습니다. 예배설교의 어조가 엄격하고 내용도 어려워서 저는 졸고 있을 때가 많았지만 설교 요약



만은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기도회 때는 어머니와 두 분만의 수요기도회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계 휴가는 평일 몇일 동안 가족들이 드라이브한 적도 있었지만, 일요일을 쉬고 다른 목사님에게 강단을 맡기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16세 때 목사가 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해 학비를 모아 고베 신학원

(고베 중앙신학교의 전신)을 졸업, 어머니와 결혼하고 나서 칸사이 학원대학에 편입,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적은 목사의 급여가 대부분 아버지 학비로 쓰였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유학하여 계속 성경 연구를 하여 88세에 뇌경색으로 쓰러질 때까지 신도와 후진을 위해 책을 집필 하였습니다.

가족의 생일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에는 친필로 성구를 쓴 생일 카드를 보내왔는데, 설날에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년의 성구는 항상 창세기 12:1-4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조국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공적인 목적 외에 조국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부모님 장례식을 위해 고향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재일 동포를 위해서 재일동포로써 생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년에는 계속되는 질병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며 병원에서 시설로 생활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불만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안에서는 상냥한 할아버지로 통하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시설에서 갑자기 폐렴에 걸려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인생에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위원회가 주최한「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KCCJ」토론회 주제강연〉

코로나 시대 KCCJ의 선교 과제 (중)

이 원 중 (교토남부교회 협력 목사)

3. 코로나시대의우리교회

1) 한국 교회의 상황

첫째, 한국 교회는 근자에 한국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2020년 2월 7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 열 명 중 일곱 명,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8할이 한국 교회도 목회자도 신뢰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나빠졌다. 특히 전광훈씨와 사랑제일교회 및 8.15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들이 방역 당국의 지침과 활동에 비협조적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신교 신자 이외의 한국인들 다수는 개신교 교회를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개신교 전도의 길은 거의 막힌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교회는 이미 교세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급속한 교세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서 12.3%가 줄었다. 각 교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과 헌금이 줄고 활발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본 교회의 상황

일본 교회는 어떠한가? 일본 교회는 최대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병행하고, 예배 시간을 단축하며, 주일 예배 이외의 모임은 자제하는 등 그 어느 단체 보다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교회 역시 진작부터 고령화 및 교세의 감소를 겪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연감』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기독교 교단은 경우, 1995년부터 2018년 사이 신도 총수는 20%, 주일 예배에 출석하며 헌금을 하는 책임 성도는 23.3%가 감소했다. 특히 주일학교의 학생은 58.2%가 감소했다. 일본기독교단을 비롯한 일본의 교회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큰 교세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교세 감소는 단순히 교회와 교인의 숫자가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랜 시간 일본 사회의 양심적 세력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자리 매김해 왔던 일본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다.

3) KCCJ에 대한 영향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교세 감소 및 사회적 영향력의 감퇴는 KCCJ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먼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KCCJ에 선교사를 보낼 수 없게 된다. KCCJ 교역자 내에서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장차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는다면 KCCJ에 무목교회가 늘어나고 더 나아가 교회의 폐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유학, 사업, 결혼 등의 목적으로 중장기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중 또한

감소하게 되면 KCCJ역시 교세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일본 교회의 쇠약은 KCCJ가 협력하는 동반자가 약해짐을 의미하며, 이는 KCCJ가 이제까지 해 왔던 일본 사회 속의 살림을 향한 사역 또한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교세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 감소의 경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적인 방식의 전도를 통한 교회 형성과 성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4. 재일대한기독교회의선교 과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세상은 기존의 한국 및 일본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에 더하여 분명히 KCCJ에게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필자는 이 위기를 한국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이어 peirasmós로 인식하고자 한다. 즉 이 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중요한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응답할 것을 제안한다.

1) 사랑의 시험: 각자도생인가 상호협력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상황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이다. 지난 4월말 버클리 대학의 교수 로버트 라이쉬(Robert Reich)는 코로나19가 미국의 계층간 불평등을 더 선명하게 할 것이라고 보며 다음의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첫째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다. 둘째, 의료종사자, 배송업자, 공장노동자 등 '필수적 일을 하는 노동자(the Essentials)'다. 셋째, 식당이나 호텔 종업원 등 '수입이 없는 노동자(the Unpaid)'다. 넷째, 감옥, 집단 수용소 내지는 보호소, 요양원에 있는 '잊혀진 이들(the Forgotten)'이다. 그의 이러한 예측은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고 있음이 9월말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서 분명해졌다.

KCCJ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교세를 유지하는 교회, 타격을 받았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교회, 심각한 타격을 받아서 앞으로 교회의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잊혀져 버린 교회, 목사, 신도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전염병의 진짜 치료법은 분리와 차별이 아닌 정보와 협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사회 그리고 KCCJ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현재 위기에 대한 대처를 각 교회에 맡기기보다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함께 위기를 넘기는 데에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말만 그럴 뿐 결국 제각기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군집이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증명될 것이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